서해는 中 어선과 목숨 건 전쟁 중

칼·쇠파이프 동원한 '바다의 조폭'…저항 날로 흉포화

검문 중 실종 목포해경 박경조 경사 끝내 숨진채 발견

지금 서해는 전쟁중이다. 우리나라 영해를 넘어 서해안을 무대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은 한국 해경의 단속에 대해 쇠파이프와 삽, 몽둥이 등 갖가지 흉기로 저항하고 있으나 해경은 이를 제압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목숨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소속 3천t급 '3003함'(함장 김도수 경정)은 25일 오후 7시4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계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발견했다.

해경은 '3003함'에 실려있는 고속단정 2척에 경찰관 17명을 탑승시켜 검문에 나섰다. 그러나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은 칼과 쇠파이프, 삽, 몽둥이 등 흉기를 경찰에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하며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하려던 박경조(48·사진) 경사가 실종됐다. 실종된 박 경사는 다음날인 26일 오후 1시10분께 검문 현장에서 6㎞ 떨어진 바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박 경사의 시신은 이날 오후 헬기를 통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박경조 경사가 숨진채 발견되자 26일 목포해경 상황실 직원들이 부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파고가 높은 데다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박 경사가 사라졌다"며 "중국 어선의 저항이 해적을 방불케할 정도로 흉포화되면서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을 제압해야 할 해경의 단속장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단속 장비는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삼단봉에 불과해 해상에서 이들을 제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해수호라는 측면에서 총기 휴대와 함께, 장비 현대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목포해경 강성일 경비구조 계장은 "중국 어선이 나포되면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목숨걸고 저항한다"며 "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중국 어선의 한국 영해 침범을 외교적으로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15시간여의 해상 추격 끝에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128㎞ 해상에서 달아났던 50t급 중국 유자망어선을 나포하고 11명의 중국 선원을 가거도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숨진 박 경사의 타살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다른 중국 어선 한척은 도주했다.

해경은 숨진 박 경사를 1계급 특진시키는 한편, 오는 2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中어선 불법조업 얼마나 되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금 서해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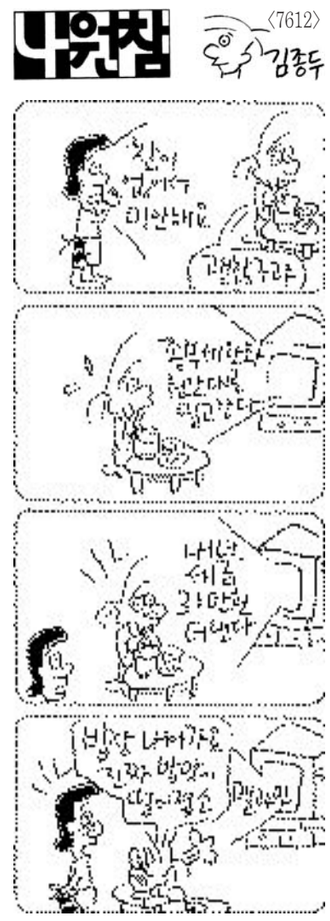
목포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2004년 139척 ▲2005년 217척 ▲2006년 207척 ▲2007년 222척 ▲2008년 현재 64척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담보금을 지불하는 담보금도 ▲2004년 14억원 ▲2005년 17억1천만원 ▲2006년 22억450만원 ▲2007년 22억7천900만원 ▲2008년 9월 현재 10억6천500만원을 부과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된 중국 선원들도 ▲2003년 27명 ▲2004년 54명 ▲2005년 15명 ▲2006년 49명 ▲2007년 22명 ▲2008년 현재 14명 등이다.

지난 2004년 2월부터 적용된 'EEZ(배타적경계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조항은 선장 뿐 아니라 기관사·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목포해경 나포 어선
2004년 139척→작년 222척
석방 담보금 14억→22억원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과도한 공업화로 인한 오염과 남획으로 중국 내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서남해안에 조기·홍어·꽃게·오징어·갈치·삼치 등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나포 위험을 무릅쓰고 흑산도·홍도·가거도 인근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치어와 잡어류까지 마구잡이로 포획하면서 황금어장이 형성된 해역의 자원고갈을 가져오고 있다. 또 중국어선이 잡은 고기는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돼 고깃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다 충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이무영의원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양석의원 벌금 80만원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력란에 허위 직함을 넣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렸다"며 유죄가 인정됨을 밝혔다. /연합뉴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상반기 하루 36명꼴

자살자 지속적 증가

최근 몇 년간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만3천3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인원은 총 6만7천851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자살자는 6천48명으로 하루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형별로는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가 2만6천53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에 의한 자살이 1만 8천 731명 (2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아이들에 믿고 먹일게 없다"

유가공 식품 전반 '멜라민 공포' 확산

간식용 용돈 끊고 홈쿠킹·모유 수유 확산

중국에서 가공된 유제품을 원료로 한 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먹을거리를 다루는 주부들 사이에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과자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자녀가 몰래 과자를 사먹지 못하도록 용돈을 주지 않는 신풍속도도 번지고 있다.

전업주부 김모(34·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는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 이름이 발표되고 모두 회수됐다지만 불안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아예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지 않기로 했고 아이들이 다니는 놀이방에도 과자를 내놓지 말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3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홈쿠킹을 통해 직접 과자를 만들기로 했다.

이씨는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비교적 관대했지만 유명회사 제품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별수없이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먹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자 불신이 확산되면서 어린이들의 간식용 용돈을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가정도 나오고 있다. 주부 서모(35·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주는 대신 시중에서 파는 과자에 대한 유혹을 끊기 위해 용돈을 당분간 주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식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파동이 촉발된 만큼 모유수유로 전환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2개월된 유아를 둔 최모(33)씨는 "중국산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다는 보도를 듣고 모유를 먹이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분유는 안전하다지만 안일하게 대처해 국민불신을 야기한 식품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중의 경계심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의심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 등 학교법인 소속 7개 학교 구성원들은 26일 오전 조선대 본관 중앙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교과부는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李 대법원장 '사법부 불행한 과거' 사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되돌아 봤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그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을 열거했다. /연합뉴스

아시아車 상대 수천억원 사기 전종진씨 송환

옛 기아차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브라질로 도주한 전종진(스토니 전·43) 씨가 27일 오전 국내로 송환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대표였던 전씨는 4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교과부 임시이사 파견 중지하라"

조선대 반발 기자회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계획 〈본보 26일자 8면〉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26일 오전 본관 중앙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당사자인 조선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역의 몇몇 기관에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지난 9개월 동안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의도가 부정비리를 저질러 학교에서 추방당한 구 경영진과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음을 경계한다"며 "법인 정상화를 통해 학교 발전을 이룩하려는 구성원의 염원을 교과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대 구성원들은 법인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교과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필기자 camus@

크레인까지 동원 건축자재 훔쳐

쌍나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40대 고물수집업자가 경찰에 덜미.

○…보성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H(45)씨 등 2명은 지난달 20일 새벽 1시10분께 보성군 벌교읍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4천500만원 상당의 가교건설용 복공판 250여개를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H씨 등은 공사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파악한 후 어두운 새벽 시간대를 틈타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25t 크레인 두 대를 이용, 복공판을 옮겼다고.

○…경찰에서 H씨는 "최근 고물을 수집하기 어려워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복공판을 우연히 본 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보성=지광현기자 light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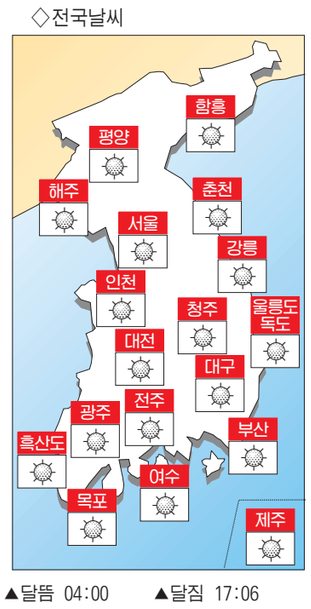
쌀쌀한 아침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으며 맑겠다.

9월 27일 (음 8월 28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0~21℃
목 포	맑음	12~22℃
여 수	맑음	15~21℃
완 도	맑음	13~22℃
구 례	맑음	9~22℃
해 남	맑음	11~22℃
장 흥	맑음	11~22℃
고 흥	맑음	11~22℃
순 천	맑음	7~21℃
영 광	맑음	10~22℃
진 도	맑음	11~22℃
전 주	맑음	8~21℃
남 원	맑음	6~22℃
흑산도	맑음	17~20℃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목 포 밀물 〈 00:33 12:46 썰물 〈 05:56 18:07
여 수 밀물 〈 07:43 20:02 썰물 〈 01:35 13:40

▲해뜸 06:24 ▲해짐 18:22 ▲달뜸 04:00 ▲달짐 17: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일)	29(월)	30(화)	10/1(수)	2(목)	3(금)
날 씨						
최저/최고	10/23	16/26	18/27	18/28	18/28	18/27